

3년간 녹지·힐링쉼터 50곳 조성 '매력 특별시' 만든다

서울시, 올해 예산 4075억 투입
폐·공가, 경작지 등 지역 특색반영
올해 22곳, 내년 15곳 등 순차조성

서울시가 다채로운 정원 녹지 공간과 힐링쉼터를 갖춘 매력 도시로 되살아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074억 6200만원을 투입해 시민의 일상 곳곳에 정원과 공원이 스며들 수 있게 녹지를 늘리고 공원 안에 책 쉼터와 같은 힐링 복합공간을 확대한다.

시는 '어딜 가든, 서울 가든(GARDEN·정원)' 실현을 목표로 '아름다움과 매력이 가득한 정원도시 구현', '산과 공원에서 즐기는 정원 여가 활성화',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도시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시는 생활 밀착형 공원 확충에 팔을 걷어붙인다. 거주지 인접 산자락 훼손지(폐·공가, 경작지) 등 지역별 특색을 반영해 테마가 있는 정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2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봉제산 책 쉼터 내부. /서울시

곳, 내년 15곳, 2026년 13곳에서 생활 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조성된 시 공원 약 95만㎡에 오는 2026년까지 쉼터와 매력가든을 만들고 훼손지를 복원하거나 건물(지상물)을 철거하는 내용이다.

금년 시는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을 포함 22개소, 13만476㎡에 테마가 있는

공원을 설치한다. 구체적으로 ▲정원문화(6개소): 전통·계절·야생화 등 주제정원 조성 ▲산자락수목원(6개소): 훼손된 산림을 기존 식생과 연계 ▲액티비티 활동(7개소): 지역주민 요구(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설치 ▲어린이공간(2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마련 ▲빈집 활용(1개소): 기존 공실 상태의 건축물

활용해 리모델링 등을 추진한다.

가족 단위의 다양해진 여가 수요를 반영해 공원 내에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즐기는 놀이공간도 마련한다.

현재 동남권 광나루한강공원(6000㎡)과 서남권 보라매공원(1만 5000㎡)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됐으며, 오는 2026년까지 동북권 북서울꿈의숲(8400㎡), 도심권 용산가족공원(3700㎡), 서북권 월드컵공원(5000㎡) 내외에 놀이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시·구 공원 18곳에는 '지붕 있는 바깥 놀이터' 콘셉트의 공원형 키즈카페가 만들어진다. 시는 벌집(성북), 중평(노원), 오목(양천), 매현시민의숲(서초), 잠실(송파), 어린이대공원(광진)을 포함 6곳에 조성을 완료했고 보라매(동작), 새샘(동대문), 강월 및 신트리(양천), 서서울호수(양천), 삼청(종로), 돌리쌍문(도봉), 쌍룡산(마포), 늘빛(강남), 당현천(노원), 신도(은평), 미래사

랑(구로) 등 12곳에 공원형 키즈카페를 신설할 계획이다.

자연 속 힐링복합공간도 선보인다. 시는 시민들이 녹지에서 사계절 내 독서와 여가를 즐길 수 있게 책 쉼터를 설치한다. 이달 중에는 용마산근린공원(중랑), 10월엔 관음사지구(관악)와 초안산(도봉) 책 쉼터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기후변화와 대도시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산불감시 및 예방·진화 체계를 가동해 도시 숲을 건강하게 관리한다.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에서는 연평균 11건의 산불이 일어났고, 피해 면적은 1만8000㎡에 이른다. 시는 올해 총 12억1000만원을 들여 산림지 153.23㎢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대비·진화·피해 조사에 나선다.

봄·가을철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 30개소를 운영하고, 산불 진화 드론·이동식 저수조 등 현대화된 장비를 활용해 산불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조리사 건강 위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서울시교육청, 관내 1002곳 대상
흡 방지기 부착 등 예산 3400억 투입

서울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의 건강을 위해 관내 1002개 급식실에 '흡 방지기' 부착 등 환기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 3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시교육청이 관내 4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시범사업'을 토대로 마련됐다.

앞서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급식실의 환기 시설이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이하 기술지침)이 있었지만, 학교 급식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기존 학교 급식실에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분석하고 기술지침의 내용을 보완·반영했다.

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에서 환기시설 개선 주요 3대 방안으로 ▲흡 방지기 부착 ▲미사용 후드 차단 ▲후드 기준 세분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조리흡이 조리사의 반대편으

로 흐르도록 해 조리사가 들이마시는 양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흡 방지기는 조리기구에서 나오는 조리흡을 빨아들여 후드까지 보내는 기구다.

특히 흡 방지기 설치에 서울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검토한 방식으로 기술지침을 준용하기 어려운 기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사용 후드는 차단하는 방안도 이뤄진다. 학교 급식실 조리기구는 전체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조리기구는 자동 댐퍼를 통해 닫히도록 해 사용풍량 증가 효과를 구현하는 방안이다. /이현진 기자 lhj@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 공감대 확산

'평화경제 토크콘서트' 열려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추진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파주 평화경제 토크콘서트'가 지난달 31일 두원공과대학교 파주캠퍼스 레이첼홀에서 열렸다.

파주시에서 주최하고 파주시민포럼에서 주관한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파주시장 및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과 시민 25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특구 지정에 대한 파주시민의 열의를 실감케했다.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이후 시민들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로서 파주의 가치와 당위성을 알리며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집중해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차문성 파주향토 문화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남북 관계와 국제정세의 전문가 정세현 전(前) 통일부 장관과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함께해 ▲남북 정세와 경제상황 ▲평화경제특구의 실효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어 토크콘서트에 앞서 정보 무늬(QR 코드)를 활용해 시민들로부터 받은 질문들을 함께 나누며,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여러분의 염원을 모아 앞으로 도 52만 파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김포공항·남산 일대 도시재생 의견 청취

서울시, 내일 오전 10시 공청회

서울시가 김포공항과 남산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변경 추진의 기반이 된다.

시는 공청회에서 김포공항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경제기반형)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대상지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수단 산업 중심의 서남권 신경계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지정하는 활성화지역(106만 7713㎡)은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포함한다. 공항 배후시설 노후로 쇠퇴하던 김포공항 일대를 공항과 연계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를 조성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기존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주변

저이용부지를 포함한 활성화지역 지정으로 김포공항 일대를 UAM·모빌리티 등 공항 인프라를 활용한 신산업 연계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명동~예장공원~남산을 함께 지정해 남산을 식생과 생물 서식지가 잘 보존된 '도심 생태환경의 보고(寶庫)'로 발돋움시킨다.

시 관계자는 "남산의 도시재생은 식생과 생물 서식처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인공 구조물의 자연성을 복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다양한 생태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해 남산을 '생태환경 재생'의 대표 사례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1 | 해질 / 19:50

6월 4일 (화)
음력 : 4월 28일

수도권 날씨
16~2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인천 11/28, 동두천 12/29, 가평 11/29, 파주 12/28, 서울 16/29, 양평 12/28, 인천 16/26, 수원 16/28, 용인 16/28, 평택 13/28, 백령도 15/2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美 국무부, 이스라엘 전시내각과 가자지구 내 새 휴전안 논의
▲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탄생...집권 여당 세인바움 후보 당선 /사진 뉴시스

▲ 푸틴, 베이징 방문에도 천연가스 계약 불발...“중국 측 요구 과도”
▲ 몰디브, 이스라엘 국적자 입국 금지...이스라엘은 ‘출국 권고’ 맞불



▲ 푸바오, ‘학대 논란’ 속 대중 공개 앞뒤...“막바지 적응훈련 진행 중” /사진 뉴시스
▲ 트럼프, 미국 내 금지 추진했던 ‘틱톡’ 가입...하루 만에 300만 팔로워 확보